

주제별 연구자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A Study on the Literature Review of Information Use Behavior in Specialized Fields

이 란 주 (Lan-Ju Lee)*

김 수 진 (Su-Jin Kim)**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학문 및 전문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여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효과적인 정보서비스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1970년대부터 2014년까지 수행된 정보이용행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국내 연구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과학기술, 사회과학, 그 외 기타분야로 구분하여 기존 연구들의 연구방법, 대상, 변인, 그리고 결과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설문조사와 같은 정량적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정보이용 목적, 정보요구, 정보이용 유형, 만족도 등의 분석 변수가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각 분야의 연구자들은 디지털 환경에 따른 정보이용의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주제분야, 신분 및 직위 등에 따라서 정보요구 및 이용행태가 다르게 나타나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보서비스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reviews literature regarding information use behavior published during the period of 1970 to 2014 in Korea. It aims to identify the researchers' information use behavior in specialized fields and contributes to provide the effective information services based on users' needs. In order to do that, it reviews research papers that are associated with information use behavior by primarily examining the subjects, methods, variables, results, and suggestions of collected literature. It reveals some differences among researchers according to their fields, career, and status while researchers in various fields make appearance the change of information use up to digital environments. It is suggested that information services based on the users' characteristics should be provided.

키워드: 정보이용행태, 정보추구행태, 이용자연구, 선행연구분석, 전문분야

Information Use Behavior,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User Studies, Literature Review, Specialized Fields

* 동덕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lanju@dongduk.ac.kr)

**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ksujin0113@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 2015년 5월 15일 논문심사일자 : 2015년 6월 12일 게재확정일자 : 2015년 6월 12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2): 129-153, 201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5.26.2.129]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급속한 디지털환경의 변화 속에서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는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함께 전문정보가 증가되고 전달되는 측면에서도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정보추구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는 이용자의 정보이용행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즉 이용자의 정보이용행태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정보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분석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 도서관이 이용되어야 하며, 얼마나 이용자를 도울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사고함으로써 도서관을 둘러싼 제반 환경과 그 환경 속에 속해 있는 다양한 이용자 계층까지 시각을 확대하게 해준다(정동열, 김성진 2010). 이용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적인 요구와 행동을 조사·분석하는 연구를 '이용자연구'라고 하며 '정보요구와 이용', '정보추구행태' 또는 '정보이용행태' 연구라고도 한다. 이용자의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주제는 정보학의 중심적 연구의 하나로 여겨졌으며 실험적 연구와 이론적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한종엽, 서만덕(2014)은 이용자 정보이용행태와 관련된 국내 연구로 과학자의 정보이용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모형을 개발한 김두홍(1974)의 연구를 그 출발점으로 보았다. 그 후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는 과학기술분

야와 사회과학분야에서 이용자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망을 통한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학문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세분화, 전문화로 인해 인문학, 예술분야에서도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연구의 대상과 범위뿐 아니라 연구 주제가 보다 세분화되고 심층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문 및 전문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조사·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이용자의 요구에 바탕을 둔 효과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에서 수행된 정보이용행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국내에서 전문분야 정보이용행태 연구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 2014년까지 수행된 연구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우선 각 전문분야 별로 수행되었던 연구들의 양적 변화를 살펴보고, 다음은 현재까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와 사회과학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그 외에 의학, 미술, 법학, 인문 등의 분야를 다루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정되었다. 첫째, DBPIA, RISS, Google에서 '연구자', '정보이용행태', '정보요구', '정보탐색', '정보이용' 키워드를 검색하였고, 둘째, 검색된 논문들의 선행연구와 참고문헌을 통해 관련 자료를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윤선영(2001)논문의 부록에 수록된 1974년도부터 1999

년도까지의 전문분야 정보이용행태 연구들을 참조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선행연구들은 과학기술분야, 사회과학분야, 그 외 기타분야로 구분하여 기존 연구들의 연구방법, 대상, 변인, 그리고 결과 및 제언에 중점을 두고 조사·분석하였다. 선정된 연구들은 주로 한 학문분야 혹은 세부분야를 대상으로 정보이용행태의 패턴을 밝히는 실험연구들이다.

교분석한 연구는 중복하여 각 분야에 포함시켰다. 그 예로 봉선화(1992) 연구는 교육학과 기계공학 교수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로 교육학과 과학기술분야에 중복하여 포함하였다. 김정환, 김재훈, 황재영(2011) 연구는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과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들의 두 집단 간의 차이점을 상호 비교 분석한 연구로 인문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에 중복하여 표시하였다. 최은주(1997) 연구는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정보이용 특성을 파악한 것으로 과학기술분야와 사회과학분야에 중복하여 양적 수치를 나타냈다.

시대별 양적 변화를 살펴보면, 1970년부터 1984년까지 10편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1985년부터 1999년까지는 40편, 2000년부터 2014년까지는 40편의 연구로 지난 45년 동안 총 90편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전문분야별로 살펴보면,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는 33편, 사회과학분야 16편, 기타분야가 41편이 수행되었다(〈표 1〉 참조).

2. 정보이용행태 관련 선행연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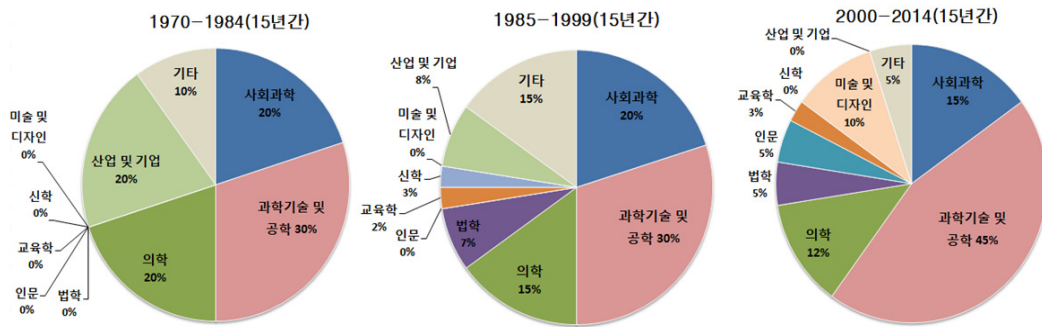
2.1 전문분야 정보이용행태 연구에 대한 계량적 분석

선행연구 분석에서 양적 수치를 표시하는 데 있어 편의상 15년 단위로 선행연구를 구분하였으며, 두 개 이상 분야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비

〈표 1〉 전문분야 정보이용행태 선행연구 분포

분 야	1970-1984(15년간)	1985-1999(15년간)	2000-2014(15년간)
과학기술	김두홍(1974)	이혜영(1985)	박일중, 백수연(2001)
	이중요(1976)	이하범(1986)	윤정옥(2001)
	한복희(1976)	이승채(1987)	유사라(2002)
		조명희(1987)	이범주(2003)
		유영준(1988)	이소영(2003)
		봉선화(1992)	이준영 외(2003)
		유재환(1996)	배경재(2004)
		김태승(1996)	이정구 외(2006)
		이복임(1997)	한승희, 이지연(2006)
		정선미(1997)	송종호, 오동근(2008)
		최은주(1997)	이지연, 한승희, 주수형(2008)
		박성미(1998)	권현우(2010)
			배경재(2010)
			김정환, 김재훈, 황재영(2011)
			신용수(2012)
		이정연, 정은경, 권나현(2012)	

분 야	1970-1984(15년간)	1985-1999(15년간)	2000-2014(15년간)
과학기술			최우석, 양동우(2014) 한중엽, 서만덕(2014)
	3	12	18
사회과학	김귀영(1983) 한무경(1983)	이진환(1988) 한연숙(1993) 김병주(1995) 주선영(1995) 최은주(1996) 최은주(1997) 박혜원(1998) 박윤경(1999)	박준식, 박일중, 신상현(2000) 윤선영(2001) 성진석(2005) 박영철(2006) 김양우(2012) 배은주(2012)
	2	8	6
의학	이성희(1978) 강숙희(1982)	이규연(1988) 공은경(1989) 정은철(1998) 김미선(1999) 이경아(1999) 이진영(1999)	홍기선(2000) 변성희, 윤구호, 서미령(2002) 홍기선(2008) 김나원, 박지홍(2009) 조화순(2011)
	2	6	5
법학		김정란(1993) 김광진(1997) 홍명자(1997)	김황우(2012) 주민지(2013)
	-	3	2
인문학			윤정옥(2009) 김정환, 김재훈, 황재영(2011)
	-	-	2
교육학		봉선화(1992)	박금주(2011)
	-	1	1
신학		안유숙(1991)	
	-	1	-
미술 및 디자인			김규훈(2004) 이명희, 정혜련(2012) 정혜련(2012) 김지원(2013)
	-	-	4
산업 및 기업	조인숙(1979) 김용근(1983)	김기대(1987) 김용근(1990) 홍유표(1991)	
	2	3	0
그 외	사공복희(1980)	윤영희(1986) 류호영, 이진영(1994) 곽승진(1995) 최성진(1995) 최영일(1996) 최유정(1997)	권영각, 윤병현, 문태수(2002) 조주형(2004)
	1	6	2
합 계	10	40	40



〈그림 1〉 전문분야 정보이용행태 선행연구 비율

각 분야별로 양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과학기술 분야는 1970년부터 1984년까지 15년간 3건(30%), 1985년부터 1999년까지 12건(30%),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8건(45%)으로 10% 포인트 이상 증가하였다. 사회과학분야는 1970년부터 1984년까지 2건(20%), 1985년부터 1999년까지 8건(20%), 2000년부터 2014년까지 6건(15%)의 수치를 보이며 오히려 5% 포인트 줄어 들었다. 의학 분야는 1970년부터 1984년까지 2건(20%), 1985년부터 1999년까지 6건(15%), 2000년부터 2014년까지 5건(12%)으로 나타났다. 산업 및 기업분야는 1970년부터 1984년까지 2건(20%), 1985년부터 1999년까지 3건(8%) 이후로는 0%였다. 미술 분야는 이전까지는 진행되지 않았고, 2000년대 이후에 4건(10%)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2.2 과학기술분야 연구자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국내 과학기술분야 정보이용행태를 분석한 연구는 1980년대 중반부터 활발히 진행되었고,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활발히 연구되었다. 1980

년대에서 1990년대에는 물리학, 화학, 항공우주, 공학, 기계공학 등의 다양한 세부 분야의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2000년대에는 국방과학, 토목공학, 해양과학 등의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보다 연구 영역이 세분화되었다. 가장 최근 순으로 수행된 총 9편의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방법을 살펴본 결과, 5편의 연구에서 정량적 방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사용하였으며, 3편의 연구에서 정성적 방법인 면담조사법이 이용되었고, 단 1편의 연구에서 정량적/정성적 방법에 의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법이 사용되었다(〈표 2〉 참조).

한승희, 이지연(2006)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자의 정보요구를 확인하고 정보요구별 이용자의 탐색행태를 조사하기 위해 246명의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 종사자들의 질문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과학기술분야 연구자의 정보요구 발생 동기는 '연구개발'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연구 아이디어의 출처는 '문헌', '본인의 이전 연구', '동료와의 집단토론'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연구 및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은 '전자도서관, 웹DB'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요

〈표 2〉 과학기술분야 연구자 정보이용행태 선행연구

연구자(연도)	분석대상	응답수	분석방법	분석변수
한승희, 이지연 (2006)	과학기술분야연구자 (기업체, 대학교, 연구소)	246명	설문조사	정보요구, 연구아이디어출처, 정보탐색 중요요소, 정보부족 문제 등
송동호, 오동근 (2008)	국방과학기술분야연구자 (연구소)	650명	설문조사	정보수집 빈도, 정보수집 고려요소, 정보수집 어려움, 정보자료 형태, 정보자료 이용빈도, 정보자료 만족도, 정보원과 정보자료에 대한 의존도 등
권현우(2010)	공과대학교수 (대학교)	121명	설문조사	정보입수경로, 연구추세 및 동향 파악 방법, 문헌탐색, 인터넷 이용시간, 대학도서관 이용, 대학도서관 홈페이지 이용 등
배경재(2010)	과학기술분야전공 학생 (대학교)	20명	면담	정보필요시점, 필요 정보의 형태, 필요 정보의 만족도, 어려운 입수 정보, 희망 정보서비스, 주요활용 정보원, 모바일 서비스, 이용성향 등
김정환 외(2011)	과학기술/인문사회분야 박사과정 이상 학술연구자 (대학교)	19명	면담	정보 활용 패턴, 정보 활용 이유, 정보 활용 능력, 물리적 도서관 이용 대비 전자정보 접근, 전자정보 활용 견해 등
신용수(2012)	과학기술분야연구자 (연구소)	205명	설문조사	선호하는 자료유형, 정보수집 방법, 자주 이용하는 출판사 및 벤더, 정보이용 만족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실태, 학술지 이용한 연구결과 발표 형태 등
이정연 외(2012)	과학기술분야연구자 (대학교, 연구소)	24명	면담	과학기술분야 R&D라이프 사이클 단계 아이디어 생산 및 개발, 펀딩과약 및 확보, 실험 및 분석, 성과창출, 평가)의 정보행동, 장애요인 등
최우석, 양동우 (2014)	과학기술분야연구자 (대학교, 연구소, 기업체)	911명	설문조사	정보이용 목적, 정보이용 유형, 온/오프라인 이용, 주 이용 포털사이트, 최초 인터넷 접속 방법, 정보서비스 선택요인, 오프라인 정보획득 경로 등
한중엽, 서만덕 (2014)	해양과학기술분야연구자 (연구기관)	109명	설문조사 면담	정보유형 선호도, 정보이용 목적, 정보 수집 경로, 정보수집 한계점, 자료특성별 이용 비율, 학술자료 참조영역, 소속도서관 이용 행태, 도서관 만족도, 전문도서관 정보서비스 필요성 등

구를 바탕으로 과학기술분야 연구자의 탐색행태 분석 결과를 적용함으로써 이용자 특성에 따라 개별화된 새로운 유형의 과학기술 정보서비스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송동호, 오동근(2008)은 국방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의 정보수집 및 이용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원 650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수집 시 일부 연구원들은 정보검색 및 정보자료 소재과약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이용 중인 정보자료의 형태별 비율은 전자자료, 인쇄자료, 비도서자료 순이었다. 이에 따라 전자자료의 수집과 관리에 대한 비중을 점차 늘려가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권현우(2010)는 공학 분야에서 학술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자 집단인 공과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정보이용행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교수들의 주요 정보 입수 경로는 '대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가 38.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연구추세 및 동향 파악 방법으로는 '학술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직위별, 연구실적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 한 결과 교수들의 직위가 낮을수록 정보입수에 어려움을 느꼈으며,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상대적으로 연구 실적이 많을수록 도서관 이용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도서관 이용 시 불만 사항으로 대부분 소장 자료가 미흡하다고 답해 앞으로 대학도서관 및 홈페이지에서는 풍부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배치하여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배경재(2010)는 대학에서 과학기술분야 학술 정보서비스를 활용하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정보요구와 정보이용행태 차이를 면담조사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학업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 형태는 '논문'이며, 입수하기 어려운 정보로는 '최신 기술/시장 분석자료'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필요정보에 대한 만족도가 대학원생은 90%가 만족한 반면 학부생은 30%만이 만족하여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학부생은 전공과 진로에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였으나, 대학원생들은 심화된 전문 자료를 요구하는 차이를 보여 학부생과 대학원생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정보이용행태가 서로 다른 경향을 나타냈다.

김정환, 김재훈, 황제영(2011)은 우리나라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과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들

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를 파악하여, 이용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구현 및 효율적인 정보서비스 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하였다. 이들 두 집단 간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 면담조사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업 또는 연구와 관련하여 주로 활용하는 자료 유형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학술지'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으며, IT Skill과 정보 활용 능력에 관해서는 두 집단 모두 별 차이가 없었다. 면담에 의하면 두 집단 모두 기본검색을 많이 하고 있었고, 젊은 학술연구자의 경우 정보검색에 대한 문제점 보다는 본인이 저장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필요시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는지를 더 고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Refworks 등과 같은 자료관리 교육과 이용자교육 제공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신용수(2012)는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 연구자의 정보생산 및 이용행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원 소속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내용은 정보이용행태 일반, 정보이용 만족도, 시간 및 비용, SNS 이용실태 등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외학술지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NS 이용실태에서는 연구자들의 47.3%가 SNS를 활용하고 있어 향후 정보서비스 개선 정책에 고려될 사항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디지털 정보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전자정보원 콘텐츠의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최우석, 양동우(2014)는 기존의 과학기술분야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연구대상이 대학교 소속 이용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한계점으로 지적하고 대학교, 공공연구소, 기업체에 소속된 과학기술 연구자 911명을 대상으로 정보

이용행태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소속 기관 별로 정보를 이용하는 목적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대학교 및 공공연구소에 소속된 과학기술 연구자들에 비해 기업체에 소속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들은 정보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과 같은 휴대형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밝혔다.

한중엽, 서만덕(2014)은 해양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정보서비스 수집과 전문도서관의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해양연구기관인 A기관의 연구자 1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이용에서 선호하는 정보 유형은 모든 연령을 포함하여 '학술논문'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료특성에 따른 이용률은 '해외자료'가 '국내자료'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전자자료'의 이용비율은 '인쇄자료' 이용률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학력이 높을수록 인쇄자료의 이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연구자의 연령, 학력, 연구분야에 따라 정보이용행태가 상이하므로 연구자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정보수집의 한계점으로는 '소속 도서관의 전자자원 다양성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도서관 서비스 수요도 분석에서는 '맞춤형 정보검색서비스'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따라서 전문도서관의 향후 운영방향은 전자도서관 시스템의 고도화와 전문 지식 콘텐츠 확보 및 제공에 주력해야 한다고 하였다(〈표 2〉 참조).

2.3 사회과학분야 연구자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분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정보이용행태를 조사한 국내 연구로는 주선영(1995)과 박준식, 박일종, 신상현(2000) 등의 연구가 있다. 〈표 3〉에서는 연구자별로 분석대상, 응답수, 분석방법, 분석변수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가장 최근 순으로 수행된 총 9편의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방법을 살펴본 결과, 총 9편의 연구 중에서 5편이 정량적 방법인 설문조사를 사용하였으며, 3편의 연구에서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을 함께 이용하였다. 1편의 논문에서만 정성적 방법으로 과업일지 분석과 면담조사법을 사용하였다.

주선영(1995)은 대학에 소속된 사회과학분야 연구자 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들 개인의 인지적 특성이 정보이용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가 설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정보환경 및 시스템 측면에서는 연구자들의 수작업탐색과 온라인 탐색에 인지적 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도서관 및 정보센터는 향후 시스템 측면에서 개인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탐색 환경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박준식, 박일종, 신상현(2000)은 사회과학자들의 연구 환경과 이용행태상의 문제점을 재검점하여 다양한 형태의 학술정보원을 제공하고 사회과학관련 교수 59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수들은 전통적인 자료수집 방법보다는 인터넷, CD-ROM, PC통신 등과 같은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수집 방법에 높

〈표 3〉 사회과학분야 연구자 정보이용행태 선행연구

연구자(연도)	분석대상	응답수	분석방법	분석변수
이진환(1988)	경영학분야 연구자 (교수 및 박사과정)	98명	설문조사	연구동기, 정보입수, 정보생산, 정보배포, 비공식 영역의 정보유통구조, 학회 가입 현황, 온라인 정보시스템이용 상황 및 이용자 요구 등
한연숙(1993)	경영학분야 연구자 (석사과정이상)	133명	설문조사	연구아이디어 입수원, 정보자료 형태, 정보자료 소개파악, 도서관 요구사항 등
주선영(1995)	사회과학분야 교수 (대학교)	66명	설문조사	도서관 및 정보센터 이용, 정보채널 및 정보원 이용, 수작업 탐색과 온라인 탐색, 사서 문의, 정보서비스 자료이용 등
박혜원(1998)	무역정보 이용자 (무역정보서비스기관 자료실)	182명	설문조사 면담	정보요구, 문헌이용, 정보입수, 최신정보기술 이용, 자료실 이용, 정보서비스 요구 등
박준식 외 (2000)	사회과학분야 교수 (대학교)	59명	설문조사	연구 환경 만족도, 자료수집 기간과 방법, 자료수집 난이도, 검색방법 선호도, 자료수집 소요기간, 최신자료 이용률 등
윤선영(2001)	증권업 종사자 (증권유관기관, 증권사)	234명	설문조사 면담	정보요구, 정보원 및 정보매체 이용, 정보매체 유형,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 이용 및 만족도, 도서관 이용 및 만족도 등
성진석(2005)	경제학분야 연구자 (연구기관)	173명	설문조사	선호 정보유형, 정보검색능력, 정보검색과정의 만족도, 정보서비스기관 이용도 등
박영철(2006)	경영학분야 교수 (대학교)	7명	설문조사 면담	연구아이디어 출처, 연구동기, 정보요구 및 탐색, 정보 입수 우선순위, 자료해결 방법, 전자저널 이용도, 인터넷 활용도, 도서관 이용과 요구 등
배은주(2012)	경영·경제분야 연구자 (연구기관)	12명 (32건)	과업일지 면담	도서관과 조직의 환경, 도서관과 개인의 업무, 조직분석, 과업의 목적과 제한점, 과업에 요구되는 인지적인 과정, 정보탐색 전략 및 방법 등

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교수의 직위별로 자료를 수집하는 기간이 다르게 나타났다. 사회과학의 다양성에 비추어 각 분야별로 향후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지속적인 고찰이 필수적이며, 새로이 생기는 각종 학술정보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에는 한무경(1983), 성진석(2005) 등이 경제학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를 조사하였다. 한무경(1983)은 대학, 연구기관, 정부기관 소속의 경제학분야 연구자 229명을 대상으로 정보요구와 이용행태를 알아보기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으로

관련 분야의 문헌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에 주로 이용하는 정보자료는 학술잡지와 단행본이었다. 또한, 학술잡지나 단행본의 참고문헌을 이용해서 문헌탐색을 한다고 밝혔으며, 외국 문헌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42%의 응답자는 시간부족과 자료의 불충분으로 도서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경제학 연구자들을 위해 도서관은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입수하여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성진석(2005)은 경제학분야 연구자들의 인쇄형 저널과 전자형 저널 등 두 가지 유형의 저

널을 이용하는데 있어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즉, 두 유형의 저널 이용자는 인구통계학적인 측면에서 학술지 선호도의 차이, 개인의 정보검색능력에 따른 두 집단 간의 차이, 검색과정의 만족도에 대한 두 집단 간의 차이, 정보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 방식과 만족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전문도서관의 학술지 구독 방향설정과 이용자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의 인구통계학적인 측면에서는 연령, 연구경력, 최종학력에 따라 선호하는 학술지의 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보검색능력이나 정보검색과정의 만족도, 정보서비스 기관 이용정도에 따라 선호하는 학술지의 유형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은주(2012)는 경영학과 경제학분야 둘 다 포함하여 정보이용행태를 조사하였는데, 경영·경제분야 연구자들이 자신의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정보추구행태를 과업 수행이라는 한정되고 필수적인 환경에서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12명의 연구자의 과업일지를 분석한 결과, 자료 입수 방식의 정보활동에

는 조직 환경과 개인의 역량 및 가치가 영향을 미쳤으며, 경영·경제 분야 연구자들은 특정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조직 환경과 개인의 역량 및 가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를 파악한 국내 연구로는 이진환(1988), 한연숙(1993), 박영철(2006), 그리고 김양우(2012) 연구를 들 수 있다. 김양우(2012)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식을 이용하여 경영학 박사과정 연구자들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정보이용행태를 분석하였으나, 정보요구의 식별, 정보시스템의 선정, 탐색어의 선택, 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탐색결과의 평가 단계 별 이용자 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일반적인 정보이용행태 특성을 파악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진환(1988), 한연숙(1993), 박영철(2006)의 연구들을 이용빈도가 높은 정보자료, 정보자료 소재파악, 아이디어출처 및 도서관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이진환(1988)은 사회과학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학술정보의 정보유통과정과 그들의

〈표 4〉 경영학분야 연구자의 정보이용 행태 분석

연구자	이용빈도 높은 정보자료		정보자료 소재파악	아이디어출처	도서관 요구사항
	1순위	2순위			
이진환(1988)	학술잡지	단행본	① 관련분야 논문, 문헌에 부기된 참고문헌(30.6%) ② 학술잡지 목차탐색(28.6%)	① 학술잡지 논문, 관련분야 문헌(30.6%) ② 본인의 수행한 이전 연구(20.4%)	① 전공분야 도서 및 자료 확충(28.2%) ② 참고도서 및 자료 확충(21.9%)
한연숙(1993)	학술잡지	학위논문	① 학술 잡지나 목차(26.6%) ② 관련분야 문헌에 부기된 참고 문헌(22.6%)	① 학술잡지 및 논문(32.1%) ② 다른 연구자와의 개인적인 접촉(19.5%)	① 전공분야 단행본 및 학술잡지 확충(30.1%) ② 참고자료의 확충(25.3%)
박영철(2006)	학술저널	학회지	① 전자저널 검색(1순위) ② 관련논문 참고문헌(2순위)	① 학술잡지 ② 전공학회 참석	신속한 상호대차 서비스

정보요구를 파악함으로써 사회과학분야의 효율적 정보유통체제를 확립시키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영학분야 연구자의 가장 중요한 정보매체로 학술잡지였으며 다음은 단행본, 연구보고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연과학분야 연구자들과 달리 정보탐색 활동에 있어 정보서비스기관의 정보담당자에게 의뢰하기보다는 동료교수의 도움을 더 많이 받았으며, 도서관에 요구 사항으로는 전공분야 도서 및 자료 확충, 참고도서 및 자료 확충 순으로 나타났다.

한연숙(1993)은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의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며 정보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경영학분야를 전공하고 있거나 전공한 자로서 석사 이상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보자료 형태에 관해 분석한 결과로는 학술잡지(54.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과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또한 학술잡지나 논문을 통해 가장 많이 입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진환(1988)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다른 형태의 매체나 채널보다 학술잡지가 가장 중요하게 이용되었으며, 아이디어출처 또한 학술잡지나 논문이 1순위로 나타났다.

박영철(2006)은 S대학 경영학 관련 분야 교수들을 대상으로 정보요구 및 이용행태를 파악함으로써 도서관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경영학분야 교수들이 선호하는 정보자료는 학술저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공학회에 대한 관심도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회자료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효과적인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공

유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경영학은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정보 입수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으로 최신성으로 나타났으며, 자료해결 방법으로 원문이 없는 경우 주로 도서관 보다는 이메일이나 외국의 아는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자료를 구하는 경향이 많았다. 따라서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거나 원문이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대차를 통해 신속하게 자료를 입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4 기타 전문분야 연구자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198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의학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정보이용행태를 파악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는 김규훈(2004)이 산업디자인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이명희, 정혜련(2012)과 김지원(2013)은 미술 및 디자인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정보이용행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외에도 인문학, 교육학, 법학, 산업분야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이용행태 연구가 시도되었다. 총 9편의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방법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정량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총 9편의 연구 중에서 7편의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사용하였고, 1편의 연구에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법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1편의 연구에서 면담조사법이 사용되었다(〈표 5〉 참조).

변성희, 윤구호, 서미령(2002)은 한의학과 기초교수들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나타나는 정보요구와 이용행태를 파악하고자

〈표 5〉 기타 전문분야 연구자 정보이용행태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	분석대상	응답수	분석 방법	분석변수	분야
변성희 외 (2002)	한의학분야기초교수 (대학교)	78명	설문조사	정보자료 입수방법, 일차적 정보원, 정보입수 소요시간, 자료종수, 이용자료 유형, 자료이용 목적, 정보입수 경로, 정보 입수 시 어려운 점, 도서관 이용 빈도 등	의학
김규훈 (2004)	산업디자인(응용과학분야 연구자 포함) (기업체, 연구소)	200명	설문조사	인쇄·비인쇄자료 이용정도, 공식·비공식채널 통한 입수건수, 컴퓨터 활용 능력, 정보 서비스 기관의 온라인목록검색빈도, 디지털 정보의 이용횟수 등	디자인
홍기선 (2008)	의사 (한양대학교병원)	177명	설문조사	정보요구, 정보이용, 도서관 이용 및 만족도, 도서관 요구사항 등	의학
김나홍, 박지홍 (2009)	대학병원 강사인 의사 (연세의료원)	12명	면담	현재 연구유형, 연구 아이디어, 진료와 관련된 정보 요구, 질문 해결 방법, 선호하는 정보원과 자료 유형, 검색과정과 만족도 등	의학
윤정옥 (2009)	인문학 전임교수 (대학교)	132명	설문조사	전자자료 입수, 이용한 전자 자료의 유형, 전자정보원의 접근방법 인지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전자정보원, 전자정보원 장·단점 인식 등	인문
박금주 (2011)	교육행정직공무원 (전라북도교육청)	155명	설문조사	정보의 중요성 정도, 정보 수집의 어려움, 도서관의 중요도, 도서관 서비스 만족도, 희망하는 도서관 서비스 등	교육
김황우 (2012)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학교)	438명	설문조사	정보이용 중요 요소, 선호하는 정보원, 정보수집 장애요인, 자료별 이용정도, 전자자료 이용, 모바일 기기 검색, 컴퓨터 탐색, 법학전문도서관 이용 등	법학
이명희, 정혜련 (2012)	디자인분야전공교수 (서울시 대학교)	110명	설문조사	정보이용목적, 정보입수경로, 국내·외 자료 이용률, 이용자료 최신성, 타학문분야 정보의 필요정도, 자료 유형별 이용정도, 데이터베이스 이용정도, 소속기관 도서관 이용, 사서도움 등	디자인
김지원 (2013)	미술분야 정보이용자 (미술대학전공, 미술관련직업)	160명	설문조사 면담	정보탐색목적, 선호정보원, 미술정보탐색 적극성, 미술정보탐색 만족도 등	미술

하였다. 분석 결과, 자료 이용 목적은 전반적으로 '연구를 위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보 입수경로는 '본인 소장 자료', '소속기관의 자료실'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를 입수할 때 어려운 점으로는 모든 직위에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부교수인 경우는 '시간부족', 전임강사는 '시간부족'과 '정

보탐색 및 이용에 관한 지식부족'이 높게 나타나 도서관에서는 자료를 확충하고 이에 대한 안내와 참고서비스를 다양화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홍기선(2008)은 의사들의 정보이용과 정보요구를 살피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의학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일반적 특

성, 정보요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도서관 이용과 만족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서관에 바라는 요구 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최근의 연구동향을 알고자 할 때'와 '환자 치료를 위해' 정보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정보수집방법으로는 '인터넷 검색'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정보접근의 '편이성'과 '정확성' 그리고 '최신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66.1%가 '만족'하였으며, 도서관에 바라는 요구 사항으로 '전공분야 및 참고 자료의 확충'과 '국내자료의 원문 DB 구축'이 77.3%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자료 원문이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완전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나원, 박지홍(2009)은 의사들의 정보추구, 특히 진료정보 및 의학지식 추구행태를 이해하기 위해 연세의료원 강사 12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반구조화 형식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질문 주제는 연구 환경, 진료와 관련된 정보추구행태, 선호하는 정보원과 자료 유형, 검색과정과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의사들이 선호하는 정보원과 정보 유형은 대표적인 의학 학술 DB인 'PubMed'를 꼽았으며, 신뢰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보검색 결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근거'와 '권위'였고, 검증된 학술 DB가 아닌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보는 선호하지 않았다. 기존 세대에 비해 컴퓨터에 능숙한 세대라는 점에서 전자저널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검색과정과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윤정옥(2009)은 인문학자들의 전자정보원 이용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인문학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132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전자자료 및 전자정보원을 어떤 경로를 통하여 얼마나 입수하고 이용하며, 이들의 장·단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문학자들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전자자료 및 전자정보원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그 이용이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전임 임용 경력에 따라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 최고경력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전자정보원 이용행태를 교차 분석한 결과, 집단별로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진연구자들은 다른 두 집단보다 전자정보원을 많이 활용하고, 이용이나 접근방법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학도서관은 인문학자들을 위해 개별 이용자가 독자적으로 자료 및 정보원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도서관 내·외부 전자자원 활용을 위한 '맞춤형' 이용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박금주(2011)는 교육행정직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를 분석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한 정보추구행태를 이해하기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직 1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분석요인은 정보요구와 자료의 이용, 정보수집, 도서관 서비스 이용, 정보의 중요성, 정보수집의 어려움, 도서관의 중요성, 도서관 서비스 만족도, 희망하는 도서관 서비스 등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보입수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자료는 '인터넷'이었으며, '동료와의 대화', '관련서적',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수집의 어려움의

이유로는 '정보가 위치한 곳을 모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행정 관련자료 부족', '자료를 찾는 방법 어려움'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응답은 교육행정 관련 자료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7.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연구결론에서, 도서관은 교육행정 관련 정보이용자들의 특성에 맞는 정보서비스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그 예로 인터넷상에 흩어져 있는 각종 참고정보원 가운데서 참고질문에 대한 해당자원이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을 수집하여 도서관의 홈페이지에서 재조직하고 배열함으로써 해당 사이트로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가상참고서가(virtual reference shelves) 구축을 제안하였다.

김황우(2012)는 학술 정보를 이용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 4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학술정보이용행태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정보를 이용할 때 중요 요소는 개인적 특성인 학년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학술Web-DB'로 나타났으며, '법률기관 사이트', '지식검색포털 검색'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학업·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검색 빈도 조사 항목에서는 '노트북'을 이용한 검색 빈도가 가장 높게 타났고, 그 다음은 '스마트폰', '태플릿 PC' 순으로 나타났다.

김규훈(2004)은 산업디자인 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를 인구통계적 요소, 세부 전공 분야 집단 요소의 관점에서 규명하고, 정보서비스기관 인지도를 비교연구하기 위해 관련 학문

인 응용과학 분야 연구자들을 포함하여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인구통계별 및 세부 전공 분야별 집단에 따라 나타나는 정보자료의 유형별 이용정도, 정보입수 방법, 정보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컴퓨터 활용정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디자인 분야 연구자들은 연령에 따른 정보자료의 유형별 이용정도, 정보입수방법, 컴퓨터 활용정도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연구경력에 따라서는 정보자료의 유형별 이용정도, 컴퓨터 활용정도에서만 차이가 있으며 정보입수방법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경력보다 연령이 정보이용행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명희, 정혜련(2012)은 디자인분야 교수들을 대상으로 세부전공, 연령에 따른 정보이용행태를 파악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변인 설정은 인구 통계적 요인 중 사용빈도가 높은 연령, 연구경력, 전공분야를 독립변인으로 채택하였고, 정보이용과 소속기관 도서관을 종속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자료 유형별 이용정도는 비인쇄자료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장 자주 이용하는 자료의 유형은 인터넷자료, 단행본, 정기간행물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동료연구자, 외부전문가, 학회와 심포지엄 토론 등의 비공식적인 회색 정보원이 중요하게 파악되었고, 소속기관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자료 부족'(53.3%)에 대한 응답 중 '전공 자료의 부족'(33.6%)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대학도서관에서는 학과별 예산 안배, 자료의 대출과 이용, 순환률 등 정확한 통계자료에 근거한 자료수집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김지원(2013)은 미술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과 미술 전공학과를 졸업하고 미술 관련 직업을 가진 정보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미술분야 정보이용자들이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고 어떻게 원하는 미술 정보를 검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면담을 시행하였다. 미술분야의 정보 탐색 목적은 '업무아이디어 수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는 미술 정보를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반 정보이용자들과는 다른 상이한 결과로 인쇄자료 선호도에서 '전시회 자료(카탈로그)' 등의 이미지가 포함된 자료들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미술분야 정보이용자들은 이미지 정보가 많이 포함된 인쇄자료를 선호한다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미술분야 정보이용자들을 위해 특화된 정보서비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미술분야 정보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3. 요약 및 논의

3.1 전문분야 정보이용행태 선행연구에 대한 계량적 분석에 대한 논의

지난 45년 동안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국내 연구는 총 90편이 수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과학기술분야 33편, 사회과학분야 16편, 의학분야를 포함한 기타 분야에서 41편으로 과학기술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최근 2000년에서 2014년까지 그 전의 1985년에서 1999년까지와 비교해 볼 때, 과학기술분야와 미술 및 디자인 분야를 제외하고는 사회과학

분야, 의학분야, 법학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정보이용행태의 연구는 양적으로 줄어들었다. 향후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분야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연구방법, 변인 등을 시대 흐름에 맞추어 심층적으로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3.2 연구방법론적 측면의 논의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정보이용행태를 조사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2000년대에는 공학, 국방과학, 해양과학 등의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보다 연구 영역이 세분화되었다.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주로 설문조사법을 사용한 정량적 분석 위주였으며 면담법과 같은 정성적 분석은 적게 사용되었다. 연구 분석 대상은 초기에는 주로 대학교 소속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점차 대학교, 연구소, 기업체 소속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넓혀 정보이용행태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변수는 '정보이용 목적', '정보요구', '정보이용 유형', '만족도' 등이 공통점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연구목적에 맞도록 다양한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특히, 과거와 달리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최근까지의 연구는 디지털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인터넷, 전자정보원, SNS, 모바일 등과 관련된 새로운 변수들이 사용되었으며, 변수들을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향후 정보서비스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의 형태로 점차 변모하였다.

사회과학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를 살펴보면 1980년대 초반부터 연구가 진행되었고, 1990년대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연구방법은 주로 설문조사로 진행되다가 2000년대에 면담, 과업일지 등의 방법이 추가되었으며, 분석변수로는 '정보이용 유형', '정보요구', '도서관 이용' 등이 공통점으로 사용되었다.

사회과학분야는 과학기술분야와 마찬가지로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영역, 연구대상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연구영역이 경영, 경제분야의 연구가 대부분이며, 세분화된 학문 분야의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연구대상의 표본 수가 과학기술분야에 비해 현격히 적으며, 연구대상이 하나의 집단을 통해 조사 분석함으로써 소규모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사회과학분야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주제를 다루어야 하며,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타 전문분야 연구자 정보이용행태를 살펴보면 2000년대에는 병원 소속의 의사와 의과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2002년도에는 한의학분야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그 외에도 인문학, 교육행정분야, 법률, 디자인, 미술 등의 분야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으로 주로 설문조사를 사용하였다.

총 27편의 연구 중 17편의 연구에서 설문조사와 같은 정량적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5편의 연구에서 면담 등의 정성적 방법을 사용하였고, 5편의 연구에서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과학기술분야와 비교하여 사회과학과 그 외 분야에서 주로 설문조사를 사용한 정량적 방법 위주였으며 면담과 같은 정성적 방법은 적게 사용되었다.

3.3 주제별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의 특징과 관련된 논의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들의 이용자 특성별 정보요구는 첫째, 교수들의 경우 대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였고, 교수들의 직위가 낮을수록 정보입수에 어려움을 보였으며,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아졌다(권현우 2010). 둘째, 과학기술분야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원들은 연구 및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전자도서관, 웹DB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승희, 이지연 2006). 또한 국외학술지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신용수 2012), 한종엽, 서만덕(2014)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료특성에 따른 이용률은 해외자료가 국내자료에 비해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용 중인 정보자료의 형태별 비율은 전자자료, 인쇄자료, 비도서 자료 순이었으며(송중호, 오동근 2008), 한종엽, 서만덕(2014)의 연구에서도 전자자료의 이용비율은 인쇄자료 이용률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학력이 높을수록 인쇄자료의 이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정보수집 시 일부 연구원들은 정보검색 및 정보자료 소재 파악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소속 도서관의 한계점으로 전자자원 다양성 부족이라고 답하였다(송중호, 오동근 2008). 셋째, 기업체 소속 집단은 대학교 및 공공연구소 과학기술 연구자들에 비해 정보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한종엽, 서만덕 2014). 이처럼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들의 연령, 학력, 연구 분야에 따라 정보이용행태가 상이하게 나타나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보서비스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사회과학분야에서 나타난 정보이용행태 특징을 살펴보면, 사회과학분야 연구자들은 1990년대까지 주로 학술잡지와 단행본을 이용하였다. 한무경(1983), 한연숙(1993), 주선영(1995) 연구에서도 학술지, 단행본의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진환(1988) 연구에서도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의 가장 중요한 정보매체로 학술잡지, 단행본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디지털환경의 변화로 전통적인 자료수집 방법보다는 인터넷, CD-ROM, PC통신 등의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수집 방법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박준식, 박일중, 신상현 2000). 즉 인쇄자료보다는 전자자료의 이용률이 높아졌으며, 정보 입수 시 전자저널을 주로 활용하였다(박영철 2006). 향후 도서관 및 정보센터는 사회과학분야 이용자들의 정보이용행태 차이에 유의하여 보다 특성 있는 정보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정보이용행태에 기반을 둔 맞춤형 정보서비스는 사회과학분야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홍기선(2008)의 연구와 김나원, 박지홍(2009) 연구에서 나타난 의학분야 연구 결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의사들은 최근의 연구동향을 알고자 할 때와 환자 치료를 위해 정보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호하는 정보원은 의학 학술 DB인 PubMed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았다. 또한, 정보검색 결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근거와 권위로 나타났다.

미술분야에서는 국내자료 및 외국자료의 이용률에서 국내자료를 외국자료보다 약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어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분야의 연구결과와 상당히 다른 결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디자인분야의 교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료 유형은 비인쇄자료이며 이들은 비공식적인 회색 정보원을 중요하게 여겼다(이명희, 정혜련 2012). 미술분야에서는 전시회자료(카탈로그) 등의 이미지 정보가 많이 포함된 것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나 다른 분야와의 차이를 보였다(김지원 2013).

각 분야별 이용자들의 정보이용행태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공통된 의견도 나타났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관련 분야의 자료부족, 자료의 소재과약의 어려움, 전자정보원 콘텐츠의 확대, 관련 주제분야 데이터베이스의 정보검색 및 정보활용 방법에 대한 이용교육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정보서비스 방안으로 기본적인 도서관 정보서비스 제공에서 출발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즉 자관 도서관 홈페이지, 통합정보검색시스템, 자주 사용하는 포털사이트에 대한 이용자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주제별 데이터베이스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도서관 이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연구자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간 및 인력의 부족을 협력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련 주제분야의 가상참고서가 구축과 협력 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을 정착화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각각의 도서관은 자관 이용자 정보이용행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맞춤형 정보서비스제공을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도록 한다.

오늘날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가 광범위하게 생산되고 교류되고 있는 가운데 사서들은 장서 구입 및 개발, 학술저널 DB 관리, 정보서비

스 등 여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서들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효율적이라고 함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도서관에서 주제전문사서가 있다면, 업무가 분담되고 이용자들에게 관련된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찾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제전문사서 도입 및 확충은 도서관 예산과 주제전문사서 부족의 한계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결과를 활용 및 참고함으로써 사서들이 각 분야의 이용자들에게 이용자 중심의 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보이용행태연구에서 다루는 학문적 특성은 각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용자연구의 결과는 사서가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행태, 특성, 요구하는 서비스 등을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서들은 전문분야의 정보이용행태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서 도서관에서 필요한 정보원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좀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분야의 정보이용행태 연구들이 수행되면, 축적된 정보들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주제별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문 및 전문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여 이

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효과적인 정보서비스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에서 전문분야 정보이용행태 연구가 시작된 1970년부터 2014년까지 수행된 정보이용행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연구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하였으며, 과학기술분야, 사회과학분야, 그 외 기타분야로 구분하여 연구방법, 대상, 변인, 그리고 결과 및 제언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 분석하였다.

특정 학문 및 전문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시대별로 정보기술의 발전 환경에 따라 연구대상과 방법이 다양하게 시도되었고,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각 분야의 연구자들은 디지털 환경에 따른 정보이용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학생, 교수, 연구원, 기업체 종사자 등의 직위나 신분에 따라서 정보요구 및 이용 행태가 다르게 나타나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학문 및 전문분야에서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효과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첫째, 이용자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정보이용행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생, 교수, 연구원, 기업체 종사자 등의 직위나 신분에 따라서 정보요구 및 이용행태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보서비스를 명확하게 제안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이용 및 정보요구의 변화이다. 과

학기술분야 연구자들은 국내자료보다 국외자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신용수 2012), 한중엽, 서만덕(2014)의 연구에서도 국외자료를 국내자료보다 2배가량 높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로 이용하는 자료 유형이 인쇄자료에서 전자자료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송중호, 오동근 2008). 한중엽, 서만덕(2014)의 연구에서도 전자자료의 이용 비율이 인쇄자료의 이용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환경에 따른 정보이용의 변화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과 같은 휴대형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밝혔다.

사회과학분야의 연구자들은 1990년대까지 학술잡지와 단행본을 주로 사용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전자자료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정보 입수 시 전자저널에 크게 의존하였다.

의학, 미술, 교육학, 법학 등의 기타분야에서도 그 업무 목표 및 환경에 따라 고유한 특징을 가진 정보이용행태를 보였다. 몇 가지 특징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학분야에서 의사들은 도서관의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는 인터넷검색이나 PubMed와 같은 주제 분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신속히 정보를 입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자인분야에서는 사회과학분야와 과학기술분야에서 해외자료가 국내자료에 비해 2배가량 높게 나타난 것과 달리(송중호, 오동근 2008), 국내자료를 국외자료 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 밖의 특징으로 이들은 비인쇄자료와 비공식적인 회색정보원 등에 대한 요구를 나타냈다.

셋째, 미술분야에서는 단행본, 보고서 등의

자료 유형이 아닌 전시회자료(카탈로그)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분야와 차이를 보였다.

선행연구분석 결과에 의하면, 각 분야별로 이용자들의 정보이용행태가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고려하여 도서관 및 정보센터는 특화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은 디지털환경변화로 인하여 인터넷과 전자자원뿐 아니라 모바일과 SNS를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들이 점차 활성화 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신용수(2012)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SNS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보서비스 개선 정책에 고려될 사항이라고 하였다. 디지털환경변화에 따른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분석이 과학기술분야와 달리 사회과학분야의 연구들에서는 아직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급속히 변화하는 디지털환경을 반영한 정보이용행태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정보이용행태와 관련된 연구를 비롯하여 대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기업체,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정보이용행태에 대한 연구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디지털환경의 변화에 따라 오늘날의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연구·학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 방안을 새롭게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정보이용행태와 관련된 후속연구를 몇 가지 제언하면 첫째, 시대적 배경에 따른 정보이용행태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 둘째, 과학기술분야, 사회과학분야, 인문과학분야와 기타

분야의 학문의 세분화와 학문간의 융합에 대한 연구 셋째, 보다 세분화된 학문 분야의 연구, 예를 들면 경영학에서 마케팅, 조직이론, 인사관리 등과 같은 세분화된 분야의 연구 등이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설문조사에 의한 단순 빈도조사에서 진일보하여

표본설계부터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무작위 표본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와 자료수집, 계량적 분석을 통한 결론의 도출과 결론의 일반화를 시도하고 심층 면담조사법 등 정성적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권현우. 2010. 『공학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C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정보과학(문헌정보).
- 김규훈. 2004. 『산업디자인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나원, 박지홍. 2009. 의료정보추구행태에 관한 탐구. 『정보관리학회지』, 26(3): 435-449.
- 김두홍. 1974. 전국수준의 과학자의 정보이용과 정보이용행동에 관한 조사를 위한 설문지안. 『정보관리연구』, 7(2): 31-34.
- 김양우. 2012. 정보행태 불확신성에 관한 연구: 경영학분야 박사과정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1): 65-89.
- 김정환, 김재훈, 황재영. 2011. 디지털 환경에서 학술연구자들의 정보요구 및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3): 189-208.
- 김지원. 2013. 『미술 분야 정보 이용자의 정보탐색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황우. 2012.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박금주. 2011.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박영철. 2006. 『경영학 분야 교수의 정보요구 및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경영지도학과.
- 박준식, 박일중, 신상현. 2000. 대학교수들의 학술정보원 이용행태분석: K대학의 사회과학교수집단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17(3): 21-43.
- 박혜원. 1999. 『무역정보 이용자의 정보이용행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

정보학과.

- 배경재. 2010. 과학기술분야 학술정보서비스 대학 이용자의 정보요구 및 이용행태 차이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2): 157-176.
- 배은주. 2012. 『인지적 업무분석 모델을 바탕으로 한 경영·경제 분야 연구자의 정보추구행태』.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변성희, 윤구호, 서미령. 2002. 한의학분야 연구자들의 학술정보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3(2): 1-18.
- 봉선화. 1992. 『대학교수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교육학과 기계공학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 성진석. 2005. 『경제학 분야 연구자들의 전자저널과 인쇄저널 이용에 관한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송중호, 오동근. 2008. 국방연구개발 연구원들의 정보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39(2): 1-25.
- 신용수. 2012. 『과학기술분야 연구자의 정보생산 및 이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윤선영. 2001. 『증권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윤정옥. 2009. 인문학자의 전자정보원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2): 5-28.
- 이명희, 정혜련. 2012. 디자인분야 교수들의 정보이용행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1): 299-316.
- 이정연, 정은경, 권나현. 2012.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 단계별 문제상황 극복을 위한 정보행동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9(3): 99-122.
- 이진환. 1988. 『경영학분야 학술정보 유통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 정동열, 김성진. 2010. 『문헌정보학 이론과 원칙』.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주선영. 1995. 『연구자의 인지적 특성이 정보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최우석, 양동우. 2014. 과학기술 연구자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비교 탐색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4): 1946-1952.
- 최은주. 1997.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특성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14(1): 27-45.
- 최흥식, 배순자, 김미진, 남영준, 오지석. 2002. 디지털 정보환경에서의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 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18: 477-500.
- 한무경. 1983. 『경제학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추구와 이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한승희, 이지연. 2006. 과학기술분야 연구자의 정보요구별 탐색행태 분석.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8: 17-22.

- 한연숙. 1993. 『경영학 분야 연구자의 정보이용 행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 한중엽, 서만덕. 2014. 해양과학기술분야 연구자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1): 163-187.
- 홍기선. 2008. 의사들의 정보요구 및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1): 33-50.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 Eun-Ju. 2012. *A Study of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on CWA Model: Researchers in the Field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Economics of Public Organizations*. M.A.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Bae, Kyung-Jae. 2010.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of Information Needs and Usages among Academic Use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2): 157-176.
- Bong, Sun-Hwa. 1992. *A Study on Information Utilization Behavior of Univeristy Professors: A Comparison between Professors of Education and Mechanical Engineering*. M.A. thesis. Sang Myung Women's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Dept. of Library Science.
- Byun, Sung-Hui, Koo-Ho Yoon, and Mi-Ryeong Seo. 2002. "A Study on the Academic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Oriental Medical Researcher." *Journal of Korean Medicine*, 23(2): 1-18.
- Choi, Eun-Ju. 1997. "Comparison of Information Use Pattern between Some Scientists and Social Scientis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4(1): 27-45.
- Choi, Hung-Sik, Soon-Ja Bae, Mee-Jin Kim, Yeong-Jun Nam, and Ji-Seok Oh. 2002. "The Qualitative Change of Information Services in Academic Libraries Caused by Changes in the Information Environment." *Journal of Social Science*, 18: 477-500.
- Choi, Woo-Seok and Dong-Woo Yang. 2014.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formation Use Patterns of Science & Technology Research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4): 1946-1952.
- Han, Jong-Yup and Man-Deok Seo. 2014. "A Study on the Information Usage Behavior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1): 163-187.

- Han, Moo-Kyung. 1983. *A Study on the Information Need & Used in the Field of Economy*. M.A.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Han, Seung-Hee and Jee-Yeon Lee. 2006. "Searching Behavior of Scientists and Technologists Based on Their Information Nee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Proceeding*, 8: 17-22.
- Han, Yeon-Sook. 1993. *A Study of Researcher-Behavior in the Use of Information in the Field of Business Administration*. M.A.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Hong, Ki-Sun. 2008. "A Study on Information Need and Use Behavior of Doctor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ociety*, 39(1): 33-50.
- Jeong, Dong-Youl and Sung-Jin Kim. 2010. *Theory and Principle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Ju, Sun-Young. 1995. *The Study on the Affect of Researchers' Cognitive Style in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M.A.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Kim, Doo-Hong. 1974. "Questionnaire about a Survey on Information Use Behavior of Scientist."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7(2): 31-34.
- Kim, Hwang-Woo. 2012. *A Study on th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of Law School Students*. M.A.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Kim, Jeong-Hwan, Jay-Hoon Kim, and Jae-Young Hwang. 2011. "A Study on Information Users' Needs an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Doctoral Researchers in Digital Ag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ociety*, 42(3): 189-208.
- Kim, Ji-Won. 2013. *A Study on Information Searching Behavior of Visual Artists*. M.A. thesis. Yonsei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Kim, Kyu-Hoon. 2004. *A study on the Information Behavior of the Industrial Design Researchers*. M.A. thesis. Sung Kyun Kwan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Kim, Na-Won and Ji-Hong Park. 2009. "Exploring Medical Doctors' Medical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6(3): 435-449.
- Kim, Yang-Woo. 2012. "Uncertainty Study: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of Doctoral Students in Business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 Science*, 23(1): 65-89.
- Kwon, Hyun-Woo. 2010. *A Study of Information Use-Behavior of Researchers in the Engineering Field: With the Sample Survey of Professors of an Engineering College of C University*. M.A.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Lee, Jin-Hwan. 1988. *A study on the Transfer and Uses of Scholarly Information in Management Science and Business Administration*. M.A.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Lee, Jung-Yeoun, Eun-Kyung Chung, and Na-Hyun Kwon. 2012. "Information Behavior for Bridging the Gaps Encountered in the Process of the Scientific Research Lifecyc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9(3): 99-122.
- Lee, Myeong-Hee and Hye-lyun Jung. 2012. "Information Use Behaviors of Professors in Design Field."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1): 299-316.
- Park, Hae-Won. 1999. *A study on User Behaviors of Trade Information*. M.A.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Park, Joon-Shik, Il-Jong Park, and Sang-Heun Shin. 2000. "The Analysis on the Academic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College Professors: A Social Scientist Group in the K-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7(3): 21-43.
- Park, Keum-Joo. 2011. *A Study on th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of Public Officials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M.A.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Park, Young-Chul. 2006. *Research of Information Needs and User Behaviors of Faculties who are Teaching Business Management*. M.A. thesis. Soongsi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mall Business, Dept. of Business Management.
- Seong, Jin-Seok. 2005. *A Comparative Study on Using the Electronic Journal and Printed Journal of Economic*. M.A.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Shin, Yong-Su. 2012. *A Study on the Science & Technology Researchers based upon the Published Research Papers and Information Behaviors*. Ph.D. diss. Chungang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Song, Jong-Ho and Dong-Geun Oh. 2008. "A Study on the User Behavior of Korean Defense R&D Researchers."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39(2): 1-25.

- Yoon, Cheong-Ok. 2009. "Research on the Usage of Electronic Information Resources of the Humanities Scholar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2): 5-28.
- Yoon, Seon-Young. 2001. *A Study on the Information Using Behaviors of Professions Related to Securities*. M.A.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